

# 광주·전남 농협 조합원 '도미노 연체' 우려

### 지역 조합, 코로나19 여파 신용사업 부진에 '마이너스 성장' 1분기 3분의 1 목표 달성 못해...하나로마트 앞세워 경제사업

광주·전남지역 농협들이 하나로마트 등 각종 경제사업을 펼치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선방했지만 신용사업 부진으로 당초 1분기 목표실적의 절반 수준 밖에 이루지 못했다.

28일 농협 광주지역본부·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결산 기준 당기순이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역조합은 전체 160곳의 3분의 1(31.9%)이 넘는 51곳으로 집계됐다.

광주본부 소속 14곳 가운데 2곳을 제외한 12개 조합은 목표를 채우지 못했고, 전남지역 미달실 비율은 26.7%(146곳 중 39곳)에 달한다.

일부 조합은 손익목표와 비교한 1분기 실적이 절반도 채우지 못해 코로나19 경영 악화가 현실화했다.

1분기의 경우 비은행 부문(경제사업) 강화와 행사 축소 등 비용 절감으로 잘 방어했지만, 매출이 부실화되고 예대마진이 지금보다 더욱 축소될 경우 2분기 실적의 감소폭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게 농협 측 설명이다.

상호금융 매출총이익은 두 지역본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32만 지역 조합원의 '도미노 연체' 불안은 커지고 있다.

지난 달 사상 첫 '0%대 금리' 영역에 들면서 대출 금리에서 예금 금리를 뺀 예대마진이 줄고 고용불안으로 인한 대출 연체료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상호금융은 연체를 증가에 대비해 충당

금을 더 쌓아야 하는 상황으로,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잔액 비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지만 매출 총이익 감소는 불가피하게 됐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지역농협들은 하나로마트를 앞다퉈 내며 경제사업에 몰두하고 있다.

광주지역 조합들의 평균 경제사업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8%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판매(22.7% ↑)·마트(19.8% ↑) 사업이 성장을 이끌었고, 구매 부문도 2.2% 소폭 증가했다.

광주축산농협은 이달 남구 월산동에 하나로마트를 신규 개장했고, 식자재 마트를 포함 6개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여천농협은 지난 2월 화양점을 연 데 이어 오는 9월에는 선원점도 개장하며 세를 넓힌다. 광주·전남지역 올해 신규 개장 예정 하나로마트만 21곳이다.

광주본부는 최근 소속 조합들과 올해 첫 사업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인한 실적부진 상황을 공유했다.

농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건전결산을 통한 농업인 소득 향상이 최우선 목표"라며 "조합원 감소와 고령 조합원 증가로 인한 사업기반 약화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 조합원 양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신비아파트 캐릭터 옷 선물하세요"



28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어린이날' 가족 고객을 겨냥한 '신비아파트' 캐릭터 의류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지역 롯데백화점과 롯데아울렛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5월5일까지 이월상품 등 최대 할인율 70%를 내건 할인·사는 행사를 벌인다. <롯데쇼핑 제공>

### '4월 광주창업포럼' 오늘 오후 4시 유튜브 온라인 개최

'4월 광주창업포럼'이 29일 오후 4시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개최된다.

매일 마지막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광주 창업포럼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에서 '광주창업포럼'을 검색하면 시청할 수 있다.

이날 창업포럼은 '빅데이터 창업과 로컬크리에이터 네트워크 공유의 장'을 주제로 테이블매니저 최훈민 대표와 KBC 광주방송 편성제작국 김태관PD가 연사로 나선다.

테이블매니저 최훈민 대표는 최근 사회

적 문제로 지적된 바 있는 노쇼(No-Show)를 방지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레스토랑 예약관리 솔루션 'TableManager'와 레스토랑 실시간 예약서비스 'MyTable'을 개발한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태관 KBC PD는 특집다큐 '나는 지역에서 살기로 했다'를 제작하며 만났던 로컬크리에이터들의 삶을 이야기하며, 지역발전과 일자리의 새로운 대안 중 하나로 로컬크리에이터가 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백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34.09 (+11.32)	↑ 금리(국고채 3년) 1.033 (+0.007)
↓ 코스닥 644.93 (-1.93)	↓ 환율(USD) 1225.20 (-1.00)

### 코로나19에도 ... 광주은행 1분기 실적 올랐다

당기순이익 467억원  
전년 동기보다 3.1% 증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도 광주은행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지난해보다 올랐다.

28일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2020년도 1분기 당기순이익 467억원(별도 기준)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453억원)보다 3.1% 증가한 수치다.

광주은행은 선제적인 건전성관리로 고정이여신비용 0.47%와 연체비용 0.43%로 은행권 최고수준의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IS자기자본비율 15.41%, 보통주자본비율은 12.98%에 달한다.

광주은행 측은 "코로나19위기 속에서도 고객밀착경영과 현장중심경영을 토대로 전년 동기 당기순이익을 상회하는 실적 지표를 냈다"며 "안정적인 경영실적의 배경에는 자원가성 핵심예금과 우량고객의 지속적인 증가, 내실 위주의 질적성장 추진, 선제적인 자산건전성 관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광주은행은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업무를 맡으며 2개월 만에 위탁 금융지원 2000억원을 넘겼다.

광주은행 직원 40여명은 광주신용보증재단 본·지점에 파견돼 주·야간으로 접수 서류 보완과 보증서 조기 발급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별도로 145개 모든 영업점에 코로나19 피해상담 전담창구를 열어 피해 기업에 자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3년 연속 '2020년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지방은행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브랜드 입지를 다져왔다.

송중욱 행장은 "평소 이익을 쫓기보다는 이익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지역과의 상생, 지역민과의 동행을 실천하겠다"는 소신을 실천해왔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지역민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전남 이직률 9.7% ... 전국 2번째로 높아

노동부, 3월 사업체 조사  
광주도 7.9%로 상승세

지난 3월 전남지역 이직률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시도별 이직률은 광주 7.9%·전남 9.7%로 나타났다. 전남 이직률은 대전(10.3%)에 이어 세종과 함께 2번째로 높았다.

광주 이직률은 7.9%로 전국에서 9번째를 차지했고, 전국 평균 이직률(7.0%)을 웃돌았다. 이의 이직률은 충남(9.3%), 대구(8.8%), 제주(8.4%), 강원(8.1%), 전북(8.0%), 충북(7.6%), 경북(7.4%), 인천(7.7%), 부산·경기(각 6.6%), 경남(6.4%), 서울(5.9%), 울산(5.4%) 순으로 높았다.

올해 들어 1~3월 광주·전남 이직률은 전국 평균을 넘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광주 이직률은 1월 5.9%, 2월 6.1%로

석 달 연속 상승세다. 전남 이직률은 1월 7.0%, 2월 6.3%로 전국 평균(1월 5.4%·2월 5.3%)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 달 광주에서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00명 많은 3만7000명이 이직했고, 전남지역은 7000명 줄어든 5만4000명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 뒀다.

한편 종사자 1인 이상인 국내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광주는 줄고 전남은 증가했다.

광주 3월 종사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0명(-0.4%) 감소한 50만6000명이었고, 전남은 1만2000명(2.0% ↑) 증가한 60만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종사자 수는 1827만8000명으로, 지난해 동월(1850만3000명)보다 22만 5000명(1.2%) 감소했다.

사업체 종사자 수가 지난해 동월보다 줄어든 것은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고용 부문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처음이다.

노동부는 "산업 전반에 걸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전남 5월 중소기업 경기 전망 전달보다 개선·지난해보다는 낮아

191개 업체 조사 SBHI 77.2

광주·전남지역 5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이 전달보다 다소 개선됐으나, 코로나19 여파에 지난해보다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체 19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5월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는 전월(67.1) 대비 10.1포인트 상승한 77.2로 나타났다. 전달보다 다소 경기전망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한 중소기업이 많았다는 뜻이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95.5)에 비해서는 여전히 18.3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기록하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별로 광주는 전월(66.0) 대비 10.6포인트 상승한 76.6로, 전남은 전월(69.1) 대비 9.2포인트 상승한 78.3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월(71.3) 대비 1.0포인트 상승한 72.3으로 나타났으며, 비제조업은 전월(63.9) 대비 17.1포인트 상승한 81.0으로 나타났다.

향목별로는 내수판매전망(64.2→75.1), 경상이업전망(60.3→69.9) 및 자금사정전망(58.4→66.2)은 모두 전월에 비해 다소 상승했다.

수출전망(57.9→44.4)의 경우는 전월보다 13.5포인트 하락했고, 전년 동월(98.3)보다는 53.9포인트나 떨어졌다. 고용수준전망(105.3→105.0)은 전월과 큰 변동이 없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은 크게 없을 전망이다.

백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91호      www.woori-hospital.com

##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 첨단우리병원

### 척추, 관절 중점 치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릎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